"조합원들이 진정한 주인 되는 농협으로 바꾸는데 힘쓸 것"

10년 이상자 농민조합원 매월 농사연금 5만원씩 지급
1억800만 연봉 정확히 50% 삭감 5,400만원 월급여 환산 수령
관내에 3개 정도 로컬푸드관 개장 목표 · 대상자 교육 진행

농사연금 지급과 조합장 급여 절반 삭감 등의 파격적 공약을 내세운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도내 최대 규모인 전주농협의 수장에 앉은 지 1년이 막 지났다.

최근에는 도내 최초로 예수금 1조원 및 대출 8,000억 원 달성한 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전주농협의 미래를 이끌 프로젝트까지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1주년을 맞은 임 조합장에게 전주농협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본다.

▲ 취임 1년이다. 소감은?

도내 최대 지역농협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면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즈니스적 마인드와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6,000여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전화로 격려해 주는 조합원들이 많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전주농협을 진정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싶다.

그러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항상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뛸 것이다.

▲ 임 조합장은 특히 '소통'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장실 문턱이 낮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소통의 방법이나 비결은 따로 없다. 그냥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이다. 조합운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아픔을 함께 하면 전주농협이 나아갈 길이 열릴 것으로 굳게 믿는다.

▲ 조합장 공약이 지켜지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응이 크다는 평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호평받고 있나?

올해 5월부터 전주농협 조합원 가입 10년 이상자인 농민조합원에게 매월 농사연금 5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선거 당시에는 연간 36만원, 월 3만원씩의 농사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전주농협 사업규모가 커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공약사항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실천한 사업인데 농민조합원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서로 어려운 시기에 조합원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탬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큰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이용에 적극적이다.

아울러 전주농협 사업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주위의 반응 또한 뜨겁다.

이 사업의 효과는 즉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차후 조합의 큰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 조합장 연봉 반액 삭감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조합장이 솔선수범해 연봉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올해 1월 1일자부터 지키고 있다.

기존 1억800만원의 연봉을 정확히 50% 삭감해 5,400만원을 월급여로 환산해 수령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 조합장 연봉 반액 삭감 실천은 주변 조합장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업이었지만, 이 또한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게 만들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전주농협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는 성격이 짙어 향후 다른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도 "조합장의 모든 공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결정"이라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 공약에서 약속한 대형유통매장보다 더 큰 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게 '로컬푸드 사업'이다.

조합원이 제값 받는 농사를 짓게 하자는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향후 2년 내 관내에 3개 정도의 로컬푸드관을 개장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조합원 중 200여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소규모 · 고령농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이다.

대규모 농산물을 생산하는 조합원은 기존의 공판장 납품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어려운 조합원들을 우선 선정했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아직 부지 선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1곳의 로컬푸드관은 송천동 에코타운 내에 대형 유통센터 건립과도 연계돼 있다.

에코시티 내 메인상업부지 2만3,100㎡(약 7,000여평) 중 1만2,045㎡(약 3,65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2014년 기준 약 260억원 정도의 가격에 부지를 인수할 예정인데, 올해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내년 안에 이곳 1만2,045㎡ 부지 중 약 6,000㎡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전주농협의 가까운 미래를 책임질 정도로 큰 만큼 우리도 철저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 여성조합원에 대한 공약도 지켜지고 있는가?

농협중앙회는 여성조합원 비율이 30%가 넘을 경우 의무 여성임원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농협은 여성조합원이 24%에 불과함에도 올해 정관을 개정해 당연직 여성임원 1명을 무조건 도입하기로 했다.

당연직 포함, 항상 여성임원 1명 이상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이 전주농협 추진 사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전주농협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 전북지역 최초로 예수금 1조원을 달성한 조합이 됐다.

지난 5월 3일경 예수금 1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는데, 사실 달성 시점은 지난해 말경이었다.

아울러 대출금 8,000억원 이상 등 전주농협의 신용사업 규모는 전북 최초달성 및 최대달성 등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주농협의 신용사업은 상대적으로 잘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또한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주농협 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홍보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다른 금융권이 이루지 못한 예수금 신장율을 얻었다. 이는 전주농협의 신용사업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실이다.

1조원 달성탑이 너무 자랑스러워 각 지점 직원들 모두 보고, 사진찍고, 기억하라고 달성탑을 돌리고 있다.

▲ 전국 지역농협 중 구급여 체계를 고수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노조와의 임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매월 노조와 4차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의 "조합원 교육비 지원을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진전이 없다.

처음안건부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무리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누진제 논의는 꺼내지도 못한 상태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직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충분히 약속한 부분이다.

직원 권리를 충분히 지켜주면서도 전주농협의 정상화를 찾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겠다.

다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요구는 반영시킬 수 없다는 것 또한 원칙이다.

노조 또한 전국적으로 농민조합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믿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전주농협에서 근무하던 시절 전국 5만여 농협 직원 중 최우수 직원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상무로 승진했던 경험 등이 공약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바탕이다.

경험을 바탕 삼아 약속대로 조합원들이 진정 주인이 되는 전주농협으로 바꾸는데 매진할 것이다.

공약을 하나씩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도 필요하다.

포괄적으론 전 조합원 및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전주농협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담아 각종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조합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경영혁신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고민형 기자